

# 지역어와 국어교육

임 칠 성\*

## <차례>

1. 서론 - 지방자치와 지역어
2. 지역어와 지역어교육
3. 표준어에 대한 신화와 방언에 대한 편견
4. 지역어의 교육 내용과 방법
5. 결론: 다시 표준어로

## 1. 서론 - 지방자치와 지역어

지방자치란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행정, 정치의 자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사회 문화의 유지 발전을 의미한다. 지역의 사회 문화 관점에서 보자면 지방자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사회 문화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sup>1)</sup>. 김문환(2001)에서는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에 입각한 '지역'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csim@chonnam.ac.kr)

- 1)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지방'이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지방'보다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은 언어적인 뉘앙스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 '중앙'이 표준어 규정 등에서 보듯이 결국 '서울'을 의미하지 모든 지방의 총화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서울을 지방이라고 하여 서울 지방에는 이라는 표현이 어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표현은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지역'은 '서울 지역'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나라의 모든 곳을 포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 '서울'이 아니라 '지역의 총화'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지역의 개념을 일단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자면, 지역사회는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는 동료 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으로서,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관념,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공통의 귀속감 등과 연관된다. 이를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region의 개념보다는 community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행정적 경계선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문화적 동질성, 합의, 자조 또는 다른 공동행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형태에 더 가깝다. 지역사회의 특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리적·행정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지방자치에 접근하게 되면 지역 언어는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언어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동료 의식을 피부로 느끼게 하며, 지역의 사회적 관념, 사회적 유사성, 관습, 전통 등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언어가 지방 자치 시대에 중요한 이유를 지역 언어가 지역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는 박혜숙(2000)의 다음 지적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정신적인 근간이다.

지역문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되는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지방 자치는 사상누각과 같아 지역민 스스로에 의한 통치이념(self-governance)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지역문화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민의 의식을 모아줌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형성해줄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적 동원을 지원해준다.

이 글에서는 지역 언어로서의 '지역어'의 개념과 그 교육을 의미하는 '지역어교육'의 성격을 정리한 다음, 지역 언어의 위상을 표준어에 대한 신화와 방언에 대한 편견을 통해 살피고, 지역어의 국어교육적 수용 방

안을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역어'와 '지역어교육'

'지역어'란 지역의 언어를 가리킨다. 지방자치의 '지방'이 단순히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 문화 공동체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어란 당연히 지역의 생활 언어를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어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2)</sup>

지역어는 지역 방언과 성격이 다르다.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음운, 어휘, 문법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체로 다른 지역 언어와의 차이에 주목하는 개념이다.<sup>3)</sup> 방언이 지역어로 인식되는 것은 방언이 언어 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언이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의 차별성을 특징적으

2) 김공철(1983:14)에서는 '방언'을 다음과 같이 '지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1) 地方語이다. 方言의 語義가 明示하는 바와 같이 一國의(혹은 일 系統) 五方の 言語다.

(2) 그것은 具體的 言語로 파악되어야 한다. 標準語는 抽象的 言語이고 이들의 비교에서 同種 운운할 것이 아니며, 方言과 方言의 具體的 言語 간의 共通 現象은 물론 特異한 俚語 現象을 전부 包括시켜야 한다.

(3) 그리고, 方言은 하나의 言語 體系의 體系를 지닌다. 斷片的인 現象과 요소의 단순한 結合에 그치지 않고 體系的인 構造를 지녀야만 우리는 方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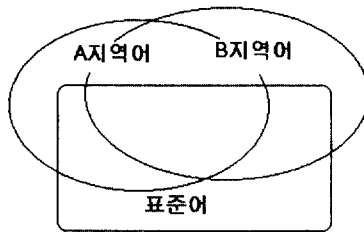
(4) 끝으로 그 體系的인 構造의 파악은 어디까지나 地域의 方言 單位로 다를 것으로 時間的인, 社會 階層的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즉 他 地方에서의 古語가 現在語일 수 있고 또한 通常語가 特殊語일 수도 있다. 따라서 地方 單位로 현재,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言語를 일컫는다.

3) Trudgill에 의하면, 방언이란 화자들이 유사한 발음, 유사한 어휘 선택, 다른 지역이나 사회의 화자나 작자와는 문법적으로 다른 문장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eter Trudgill, *Accent, Dialect and the School*(London: Edward Arnold, 1975), 17'을 황적륜의(1994)에서 재인용함.

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역어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소통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어는 다른 지역어와 공통되는 부분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와도 공통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 따라서 지역어는 표준어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며, 지역어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어와 지역어, 표준어의 관계



지역어는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문어는 학습에 의해 체계적으로 익히는 언어로서 매우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어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히는 언어로서 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규범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어에는 예를 들어 억양과 같이 일정하게 규범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어의 특성을 반영하기 쉽다.

‘지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언어 생활 교육으로서, 지역어의 이해와 지역어 의사소통 활동 및 지역어에 대한 태도는 물론, 지역의 언어 예술과 같이 지역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반 현상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비록 지역어교육이 생활 언어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어교육이 국어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어교육의 위상은 전체 국어교육과의 관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활 언어는 일정한 교육적인 처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지역어는 대부분 특별한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어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어 생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지역어교육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표준어 가운데 지역어와 동일한 부분은 지역어를 통해 표준어가 자연스레 생활 언어로 받아들여지지만, 지역어와 표준어가 다른 부분은 인위적으로 표준어를 교육하여야 하는 것처럼, 표준어와 다른 지역어는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고어의 잔재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지역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나아가 지역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지역어교육도 다른 언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언어적 사실보다는 지역어의 체계가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어의 높임 체계나 호칭과 지칭 체계와 같은 지역어의 체계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처치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지역어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의 언어 생활 가운데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여 위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어교육은 표준어와 다른 각 지역의 개별 언어 현상과 언어 체계를 알고, 지역의 언어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의 언어를 계승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어교육은 국어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언어로 표현된 예술 작품에 대한 교육과 지역어를 통한 사고 교육 및 지역어 언어 체계에 대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이 일반적인 국어교육과 겹칠 때에는 굳이 이를 지역어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sup>4)</sup>

### 3. 표준어에 대한 신화와 방언에 대한 편견

지역어를 지역 공동체의 생활 언어라고 규정할지라도, 지역어교육에서 방언은 핵심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방언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국어교육과나 국어국문학과에서 '연구'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초등과 중등 교육 기관에서는 올바르게 않은 언어 생활

4) 지역어교육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4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의 대표적인 표본이었으며, 적어도 ‘교육’의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은 방언으로 언어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교수 화법도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sup>5)</sup>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7년 전국의 국어 교사(초등학교 교사 포함)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어 사용과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다음에 보이는 교사와 학생들의 평상시 언어 사용 실태의 조사 결과이다(국어연구원 1997:83).<sup>6)</sup>

<표1> 교사와 학생들의 평상시 언어 사용(단위 %)

구분	표준말만 사용	방언 약간 섞인 말	방언 상당히 섞인 말	방언만 사용	방언과 표준어 구분해 사용	합계
교사	12.7	50.1	17.0	0.4	19.7	100
학생	24.9	2.6	59.7	12.8	--	100

이 표를 통해 방언을 사용하는 국어 교사가 방언으로 표준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표준어 교육의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 학생들은 표준어와 방언의 이중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 언어 생활은 학생들의 언어 생활이 국어교육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표준어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준어에 대한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준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잘못된 사회적 신념 즉, 신화를 가지고 있

5) 교수 화법의 방언적 요소는 억양과 문법적 요소에서 자주 발견된다. 우선 대부분 교사는 자기 지방 특유의 억양으로 말한다. 물론 억양은 대체로 방언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지만 타 지방 사람들이 상대 화자의 지방을 의식하는 첫째 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억양이다. 따라서 지역어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억양은 중요한 공동체 요소일 수밖에 없다. 다음은 문법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경북 지역 어느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찾았는 사람, 뗏고?, 가나?, 안카나?’와 같은 표현들을 대체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6) 이 조사는 전국의 국어 교사 2,122명(초등학교 교사 740명 포함)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표준어 사용과 표준어에 대한 태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다. 다음은 Ann Ruggles Gere and Eugene Smith(1989)에서 지적하고 있는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에 대한 신화이다.<sup>7)</sup>

1. 표준 영어는 올바른 발음, 문법적 구조, 단어 선택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표준'이 되는 것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가장 다방면에서(versatile) 가장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영어로 세련되어(refined) 왔기 때문이다.

2. 표준 영어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여야 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다. '표준'이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만하며(serviceable) 의사소통할 만하며(negotiable) 그래서 가장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표준 영어는 학교 교육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그래서 직업의 성공에도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선택의 기회를 신장시키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한 기술은 기저에서 명확하게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4. 표준 영어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언어이다. 훌륭한 영국이나 미국 작가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업무가 이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확히 이 언어가 정밀한 사고를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언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5. 흑인이나 촌사람(hillbillies)들은 일종의 타락한(degerate) 영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타락한 언어라는 것은 그언어의 세련되지 못한(sloopy) 발음과, 부정확한(imprecise) 어휘와, 많은 문법 규칙을 어기는 것(violation)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언어가 정확한 발음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표준어에 대한 이러한 신화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사실이라면 모든 교육은 표준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교육에서는 마땅히 표준어만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준어란 과연 이러한 신화에 걸맞

---

7) 'Ann Ruggles Gere and Eugene Smith, *Attitudes, Language and Change* (Urbana, IL: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79), 8 - 10'의 내용을 Larry Andrews(1998)에서 재인용하여 번역한 것임.

은 언어인가? 그리고 표준어가 아닌 언어들, 즉 방언은 세련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언어인가?

우선 표준어의 정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준어는 그 성격상 고착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렇지만 언어는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혹은 적어도 표준어가 그 변화를 수용하여 바뀔 때까지라도 고정된 모습을 지속하기 어렵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대 서울말'은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표준어는 가공의 언어일 따름이지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표준어는 대체로 음운(파리/포리), 어휘(부추/술, 부엌/정지), 문법(오십시오/오이다, 했어요/했어라우)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실제 사람들은 지방 방언을 발음(외무/예무)과 억양을 통해 일차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말을 듣고서 문민정부의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대통령이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할 때, 그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의 중심 요소는 어휘, 문법보다는 출신 지방 특유의 발음과 억양이라는 것이다. '전라도 말'은 투박하고, '경상도 말'은 무뚝뚝하다고 할 때 '경상도 말'의 정체도 음운, 어휘, 문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억양에 있다. 말을 들어보아 어떤 사람을 '촌사람'이라고 할 때도 대부분 그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의 어휘나 문법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억양과 때문이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의하면 표준어는 언어의 변화에 따라 방언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 나라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한편 같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도록 해주는 '통일의 기능'과 공적인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기능 '준거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 변화의 추이는 방언간의 차이가 커지는 쪽이 아니라 방언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그렇게 방언간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표준어 교육 때문이 아니라 매스

컴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의 언어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규범에 의한 언어 변화가 아니라 준거 언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언어 변화이고, 그 변화는 이질화가 아니라 동질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어교육에서 표준어의 의미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표준어가 강조되었던 것은 구어보다는 문어에서다. 표준어는 학교 교육 등에서 글쓰기의 규범 문제이다가, 이것이 일단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올바른 언어라는 인식을 얻게 되면, 구어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Barbara & Pugh 1987:45). 표준어의 강조는 학교 교육에서 구어보다는 문어를 강조하게 한다. 우리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문어를 강조하다보면 문어처럼 말하거나 듣기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구어 능력의 발달에 방해 요인이 된다. 또한 구어를 표기하는 체계로서 문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의 체계에 맞추어 구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을 방해한다.

표준어를 강조하는 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태도이다. 예를 들어 가장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경우 문화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언어생활은 온갖 낡은 규범의 구속에서 벗어나 가장 문화적인 언어적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토배기사투리, 《결말》, 《상말》, 《직업어》 등 낡은 사회의 유물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를 적극 배우고 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언어규범화에서 낡은 언어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진적 문화에 알맞은 언어요소들을 규범으로 잡는 것은 문화성원칙을 관철하는 확고한 길이다. 언어규범화에서 문화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언어생활의 요구를 실현하는 가장 힘있는 담보이다.(156-157)

사회주의적인 언어규범화에서 지켜야 할 원칙의 또 하나는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lt;중략&gt;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언어생활은 온갖 낡은 규범의 구속에서 벗어나 가장 문화적인 언어적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토배기사투리, <<결말>>, <<상말>>, <<직업어>> 등 낡은 사회의 유물을 가지고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인 문화어를 적극 배우고 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언어규범화에서 낡은 언어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진적문화에 알맞은 언어요소들을 규범으로 잡는 것은 문화성원칙을 관철하는 확고한 길이다. 언어규범화에서 문화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언어생활의 요구를 실현하는 가장 힘있는 담보이다.(156-157)

다음은 방언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살펴보자. 방언에 대한 편견은 일단 표준어와 상대되어 그것이 저급한 수준의 언어라는 것이다. 저급한 수준의 언어란 언어 자체가 저급하다는 것과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으로 다시 나누어볼 수 있다.

방언은 과연 저급한 수준의 언어인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방언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 다르다 하여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자연에 순응하여 변화한다. 방언의 발음대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표기와 발음의 이중성에 관한 문제일 따름이다. 방언도 방언 나름의 구조적 적절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황적륜 외 1990:414). Larry Andrews(1998:205)의 지적처럼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s)은 단어를 발음하고, 문법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생각이나 대상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규정을 하는 합리적이고(legitimate) 정당한 방식일 따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느 정도의 편협한(intolerance) 거부감이 있다.' 국립국어연구원(1997)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보자들은 표준어가 자신들의 지역 방언에 비해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고, 상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역 방언은 '믿음직스럽고, 씩씩하지만, 촌스럽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8)</sup>

8) 우리는 강희숙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선언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

교실에서 방언을 심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거나 불량 학생이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체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 계층이 낮다는 인식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적륜 외(1990:426)의 다음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9)</sup>

다.

“설명에 앞서, 필자는 먼저 내 아이가 “그건 틀린 말이라고요.”라고 하며 (“비개 비고 자그라!”라는: 필자 첨기) 할머니의 말에 질정(叱正)을 가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일부터 해야 하겠다. 흔히 사람들은 사투리 혹은 방언을 틀린 말, 배우지 못해서 쓰는 무식한 말로 낙인을 찍곤 한다. 그래서인지 고향을 떠나 서울과 같은 대치로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말 바꾸기’라고 생각한다. “밥 먹었냐?” 대신에 “밥 먹었니?”로, “잊어 부렸다.” 대신에 “까먹었다.”로 바꿔 써야만 교양 있는 서울의 특별시민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강조하건대,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언어나 사투리도 다른 언어나 사투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 없다. 모든 언어는, 또 모든 사투리는 언어학적으로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란 성립하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다. <중략>

결론적으로 말해, ‘베개’가 ‘비개’로, ‘베고’가 ‘비고’로 발음되는 것은 전남방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규칙의 적용에 의한 언어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 변화는 모음 ‘이’를 포함하고 있는 음절이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짧은 소리에 비해 긴 소리가 보다 높은 혀의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은(곧, 모음 상승을 겪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자연스럽다는 것, 이는 우리로 하여금 ‘비개를 비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고된 삶을 살아내느라 지친 날개를 접어 두고, 밤이면 우리들 모두가 단잠을 실컷 잘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www.chosun.ac.kr/~hskang/index\\_2.htm](http://www.chosun.ac.kr/~hskang/index_2.htm)에서 인용함)

- 9) 황적륜 외(1990:426)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Labov의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Labov(1972a,chapter 6; 1982a)는 공공학교에서의 가치개념과 도시 흑인 아이들, 특히 사춘기 전과 사춘기의 소년들의 가치개념 간의 갈등이 언어적 특징 그 자체보다 읽기능력시험에서의 낮은 점수와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Lavob의 견해로는 읽기를 잘못하는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Lavob와 그의 동료들은 그 그룹 구성원들이 지력과, 지식, 그리고 언어기능을 갖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실패의 원

Cheshire(1982:154-5)도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모험놀이터에서 자주 모이는’ 영국, 래딩의 소년집단에게도 꼭 같은 가치들이 적용됨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Miller가 나열한 것과 일치하는 여섯 가지 특징을 사용하여 ‘토박이어 문화목록’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여섯 가지 특징은 싸움 잘하는 능력, 무기 휴대, 사소한 범죄행위への 참여, 특정 직업선호(기계공이나 군인 등), 옷과 머리모양, 그리고 욕질하기 등이다. 결과적으로 얻은 목록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말투의 사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푸대접받는 사회언어학적 변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학교 및 학교와 연관된 가치들이 이들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Larry(1998:202)의 지적에 의하면 방언은 오히려 표현의 효과를 더해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 문법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준 영어에 관한 진술은 그러나 협력의 원리 가운데 양의 범주를 어기는 것이다. 표준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준어로 말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What they may be true, but it isn't whole truth.)

다음 방언은 죽은 언어로서 고어의 잔재일 따름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방언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신생, 유지, 사멸의 과정을 거쳐하는 유기체이다.

예를 들면, 濟州 方言에 相對 尊待의 疑問形으로 감수파 ‘갑니까’가 있는데, 이것이 共通語 主體 尊待 結合形인 ‘가십니까’를 본떠서, 가섬수파라는 新形을 발달시킨 것과 같다.

---

인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길거리 그룹 street group) 내에서 너무 성공적이어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낯설은 가치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립성이 모자라 길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보다 성공적이 됨으로서 부족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언어학 426쪽)

그러므로, 兩極端의 地方 혹은 難島 僻村의 俚語 現象을 그 地理的 關係에서 바로 古形의 殘存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古語 現象과 新語 現象을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方言이던 무턱대고, 古語 現象으로 보고 걸핏하면 新羅語의 殘存 운운하는 獨斷을 삼가하고 오히려 新語 現象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주목하여 과거의 方言 研究가 俚語 研究에서 國語의 과거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國語 變遷의 동향을 나타내는 新形에 유의하여 國語의 장래를 알기 위한 俚語의 研究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김공철 1983:10)

언어에는 삶의 체계와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러한 점은 표준어보다는 지역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역어가 지역성을 띠는 것은 그 지역의 삶의 체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성은 획일적인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역성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진정한 발전은 통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183쪽)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방언은 표준어와 발음만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방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방언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 방언 속에는 각 지방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방언은 각 지역의 특유한 정서를 담아 의사 소통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표준어가 통일 기능을 가지듯이 방언 역시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준어는 그 공간적 배경이 국가임에 비하여 방언은 특정 지역이라는 점이다.

방언은 또한 그 나름대로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준어와 비교해 볼 때 발음들이 무질서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한 방언만을 놓고 분석해 보면, 각각 독특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발음뿐 아니라 단어 형성, 문장 구조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

#### 4. 지역어의 교육 내용과 방법

지역어의 교육 내용은 크게 지역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포함한 지역어 현상 ‘알기’, 지역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살기’, 지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바탕으로 지역어를 발전적으로 ‘잇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알기

알기에는 개념적인 이해와 지역어의 현상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념적인 이해에는 지역어의 개념, 지역어와 표준어의 관계, 지역어 교육의 의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지역어의 개념은 지역 방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생활 언어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어의 가치나 위상보다는 지역 공동체에서의 지역어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지역어와 표준어의 관계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표준어에 대한 신화와 지역어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지역어를 강조하면서 표준어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어 교육의 의의에서는 해당 지역어의 우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지역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 모리배 세력들 때문에 이른바 지역 감정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 교육은 자칫 지역성의 강조와 지역 우월주의 양상을 띠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제나 경계하여야 한다. 지역어 교육은 오히려 그러한 지역 우월주의나 배타적인 지역성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지역어 현상에 대한 이해에는 지역어 권역 구분, 해당 지역의 방언 요소(음운, 어휘, 문법), 억양, 지명, 높임법, 호칭과 지칭, 관용 표현(예를 들어, 俗信語), 민속 어휘 등 제반 지역어 현상이 포함된다.

지역어에서 지역의 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어 권역 구분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군 단위로 지역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어의 특색이 대체로 대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제주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경기도 말, 강원도 말, 서울 말 등) 지역어 교육도 이러한 대단위 지역을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변별적인 지역어 특색이 드러나는 방언 분할권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지역어 권역 분할의 양상을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방언 요소, 즉 방언의 음운, 어휘, 문법 요소들은 지역어 교육에서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어의 한 부분이다. 방언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은 지역어 교육의 차원을 넘어 전체적인 언어 교육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방언은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표준어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단편적인 현상보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어 음운의 체계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sup>10)</sup>

10) 김공철(1986:343-4)에서는 국어교육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흔히 그 인식의 과오를 범한 方言觀을 새롭게 하여 方言은 住民生活에 密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低劣한 言語가 아니라는 것, 方言으로 劣等感을 느끼지 말자는, 그리고 方言을 資源化하는 그러한 方向으로 方言教育이 실시될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그것이 바로 地域 나름의 特殊性을 고려하는 地域性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1) 方言의 保存, 改良 - 主體적으로 自己의 方言을 觀察하도록 하여, 自己의 方言과 共通語의 對應을 알고 方言 體系를 트득하여 共通語를 漸次 익히고, 나아가서는 共通語 改良 혹은 方言의 共通語에로의 進出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方言 complex 克服 - 方言은 가까운 사람끼리 사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思考 作用과 感情의 움직임에 가장 密着되어 있다. 그러므로, 方言의, 學習의 場에서의 有效 適切한 驅使는 學習 效果를 높일 수 있겠다. 또한 方言에는 구수하고 그윽한 風格이 풍겨 있으니, 결코 가볍게 웃고 嘲弄하는 따위의 低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相互間 理解하는 氣風의 育成에 努力하

사람들은 대체로 이 억양을 통하여 지역의 말씨를 체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양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요소이다. 또 지역어 교육에서 억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억양은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절로 습득되기 때문이다. 지역어 교육에서는 지역어의 억양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그 억양이 주는 느낌과 같은 편견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방언과 마찬가지로 지명도 지역어 교육의 차원을 넘어 전체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육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어 교육에서 지명은 단순히 분할된 지역에 대한 명칭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지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것을 표시하

---

지 않으면 안된다.

(3) 言語 資源 開發 - 方言은 나쁜 말이 아니며, 따라서 경멸할 것이 아니라는 消極的인 立場에서 進一步하여 方言은 살아 있는 최고의 言語로서 採掘 保護하는 積極적인 견지에로 활동이 展開될 것이 기대된다.

또 김공철(1986:363)에서는 방언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言語 生活이라고 하는 것은 言衆의 意圖에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意圖, 姿勢를 바로잡는 데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方言은 地域 社會 住民의 오랜 生活의 呼吸이며 結晶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高貴한 生命性과 歷史, 文化, 傳統이 凝結되어 있다는 사실을 方言과 文獻과 地名 등 言語 資源을 통하여 實證해야 한다. 이러한 實證은 많은 言衆들의 共感과 自負心を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言語 生活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하기와 듣기이다. 自己의 意思를 충분히 남에게 전할 수 있고, 남의 意思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말하기와 듣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自己가 처해 있는 地域 社會의 言語에 대해서는 충분한 知識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技術이 있어야겠고 體得이 있어야겠다. 皮相的인 知識이나 技術만으로도저히 이루지 못할 게 있다. 微妙한 感情의 杼杼의 表現, 隔外感 없이 주고 받는 말의 리듬, 律動이 있고 운이 흐르는 말의 흐름, 하나하나의 낱말에는 태어났을 때부터의 原初의 體驗이 서려 있고 그것이 話題에서의 脈動, 그리고 發刺性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方言에 간직되어 있다. 그것을 역시 生活의 場에서 살리고 키워나가는 것, 그 일이 方言 教育의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다.

는 명칭이 부여되기 마련이고, 또 공동체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의 자연물에도 명칭이 부여된다. 그리고 자연물 근처에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명칭이 그대로 마을의 지명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들 마을이나 그 마을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물에 부여된 명칭들이 이른바 넓은 의미의 지명이다. 그리고 지명에는 우리말 지명이나 옛날 지명과 함께 지금의 행정 지명을 모두 포함된다. 지명은 행정 조직과 구역의 변경, 통합, 정리 등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생활 양식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옛 지명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어 교육을 통하여 지명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것은 전체 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말의 높임법 체계는 지역에 따라 특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일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높임법의 체계가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언어 생활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대가 손윗사람일지라도 비격식 상황에서 반말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엄마, 밥 먹었는가?’, ‘삼촌, 지금 어디 가?’와 같은 경우들이 그 예들이다. 또 가까운 형님뻘 손윗사람에게는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에 기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어에 따라 높임법 체계가 다른 것에 기인할 따름이다. 높임법의 체계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의 만남은 호칭과 지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호칭과 지칭은 공동체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높임법과 마찬가지로 호칭과 지칭 방식도 지역에 따라 특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것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지역의 호칭과 지칭 방식에 대한 무관심과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호칭과 지칭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용에 기인한 것일 따름이다. 장인과 장모의 호칭에 대한 다음의 사례들은 지역에 따라 호칭과 지칭의 체계가 지역에 따라 사뭇 다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국립국어연구원 · 조선일보사 1997)

소설가 이상문(李相文·44) 씨는 어쩐지 낮간지러워서 어머니, 아버님이 라고 못 부르지만 장인, 장모는 또 너무 무례한 것 같아 '빙장', '빙모'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좀 점잔 빼는 것 같은 이런 말투는 전남 나주의 그의 고향 일대에서는 가장 흔한 말씨다.

중세 국어에서 장모를 뜻하는 말은 '가식 엄'이 있었다.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1938년 발행)은 '가시어미'가 장모의 사투리이며 '가시아비'는 장인의 사투리라고 규정했다. '가식' 또는 '가시'는 '각시'에서 온 말로 여겨진다. 경북과 경기, 강원 지방 사투리에는 아직도 '가시 아방', '가시 아배', '가시집', '가시 어멍'이란 말들이 남아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호칭과 지칭 체계의 다양성은 국립국어연구원의 호칭과 지칭 표준화 사업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호칭과 지칭은 각기 지역적인 인간 관계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위적인 표준화보다는 각 지역의 체계와 방식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지역어 알기는 다른 국어지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탐구의 방법으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류하여, 내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예시> 탐구적 방법을 활용한 지명의 이해의 예

대체로 지명의 앞쪽은 지명의 생성 동기나 유래를 알려주고 뒤쪽은 지형상의 유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버드실'에서 앞의 '버드'는 버드나무가 많다는 것에서 생겨난 지명임을 알려주고 뒤의 '실'은 이곳이 골짜기였음을 알려준다. 다음은 지명 후반부에 붙은 표현을 중심으로 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우리 지역의 지명 가운데 각각에 해당하는 지명을 찾아보고 분류해 보자. 그리고 전반부의 명칭을 각 특색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보자.

- 산(山)을 소재로 한 지명.(~피, ~메, ~미)
- 골(谷)을 소재로 한 지명. (~골/굴, ~실)
- 개·고개(城·峴·岸·嶺·峯 등)를 소재로 한 지명.(~재, ~고개, ~기, ~치/~티)
- 바위·돌(巖·石)을 소재로 한 지명. (~바위, ~돌)
- 물(江·川·溪·池·泉·井·灘)을 소재로 한 지명.(물, 내, 못, 샘, 여울)
- 들·별판·터 등을 소재로 한 지명(~들, ~밭, ~별, ~불, ~부리, ~울)
- 지형·지세의 특징을 소재로 한 지명(~구지, ~고지, ~구미, ~기미, ~금, ~그미, ~목, ~벼랑)

지역의 전설, 설화, 민담, 민요 등과 같은 구전물이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잘 알려진 지역어 교육 방법이다. 예를 들어 「태백산맥」 등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 드러난 지역 어휘나 문법 표현 현상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문학 작품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지역의 말씨를 다룬 작품들도 있다. 이런 작품들은 지역어 교육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예시> 지역 문학을 활용한 말씨 교육의 예

다음은 최명희의 「혼불」 가운데 일부이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억양을 가진 표현들이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말씨를 찾아보자.

남원 말은 다른 곳과 달라 전라남북도와 경상도, 삼도 접경 지역의 여러 고을 사투리 억양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 콩심이 이상하게 생각한 말은 “하아.”였다. ‘하’가 높고 ‘아’가 낮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였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콩심이도 얼마든지 경우따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웃어른한테는 못 쓰는 것으로, 무슨 말에 대답을 할 때 주로 썼다. 그러나 그 쓰임새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았다.

“너 밥 먹었냐?” “하아.”같은 것은 알아듣기 쉽지만, 긍정, 맞장구,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 감탄, 노여움들은 모두 그 곡조로 알아들어야 했다. 그

곡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내용,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궁무진 변조가 되었고, 미끄러지거나 채울리거나 툭 자르거나 미묘하게 출렁이는 말의 가락은 마치 노래 같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최명희의 「혼불」 4권 75 쪽)

지역어의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말에서는'이라고 할 때 '전라도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먼저 파악되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역어 현상들을 선별하여, 이를 교육 목적에 맞게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어의 모든 현상이 지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살기

지역어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좋은 방법은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어를 가려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생활이다. 이중 언어 생활은 풍요롭고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살 수 있게 해 준다.

표준어 생활과 지역어 생활이라는 이중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어 사용자들이 지역어 사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어 교사들(초등학교 교사 포함)에 대한 국립국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어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다 (1997:26-28).

### <설문>

(방언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만 답해 주십시오.) 표준어 사용 지역에 갔을 때 자신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가. 땃땃하다.(자랑스럽다.)

- 나. 아무렇지도 않다.(무관심하다.)  
 다. 부끄럽다.  
 라. 기타 의견 :

<표2>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별 응답자의 반응

구분	영동	영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가	21 (13.6)	7 (18.9)	23 (9.6)	36 (12.2)	24 (11.5)	14 (8.3)	11 (10.0)	11 (12.2)	23 (17.2)	170 (11.8)
나	88 (56.4)	19 (51.4)	111 (46.4)	157 (53.4)	112 (53.8)	86 (50.9)	57 (51.8)	54 (60.0)	49 (36.6)	733 (51.0)
다	32 (21.4)	7 (18.9)	69 (28.9)	65 (22.1)	40 (19.2)	47 (27.8)	30 (27.3)	17 (18.9)	26 (19.4)	333 (23.2)
라	15 (8.6)	4 (10.8)	36 (15.1)	36 (12.2)	32 (15.4)	22 (13.0)	12 (10.9)	8 (8.9)	36 (26.9)	201 (14.0)
계	156 (100)	37 (100.1)	239 (100)	294 (100)	208 (100)	169 (100)	110 (100)	90 (100)	134 (99.9)	1,437 (100)

표준어 사용 지역에서 자신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떳떳하게 생각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2.8%나 되고, 반면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23.2%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의 <표2>에서 표준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20% 내외이고 방언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내외인 것에서 보았듯이(서울 경기 출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곧 표준어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표준말만 사용하는 사람의 실제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 이중 언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중 언어 생활을 거부감 없이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국어연구원 1997:29).

표준어와 지역어의 이중 언어 생활이 바람직하게 영위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표준어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이중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역으로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어는 대부분 자연스레 익혀지는 반면 지역어와 다른 표준어는 인위적인 교육이 아니면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준어를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인 우리의 표준어 교육 현실에서는 표준어 교육의 강화가 절실한 요구이다. 제주도의 이중 언어 생활에 대한 다음의 지적은(국어연구원 1997:28) 표준어 교육의 강화가 지역어의 사용을 당연하고 효과적인 이중 언어 생활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설문9에 대한 응답에서: 필자 첨가) 제주 지역은 ‘부끄럽다’는 대답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다. ‘떳떳하다’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답도 매우 낮다. 제주 지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표준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다 잘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 지역 사람들은 따라서 표준어 사용권에서는 방언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역어로 살기 위해서는 지역어와 표준어 사이의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국어교육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지역어와 표준어 사이의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은 지역어에 익숙한 상태에서 새로이 표준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글쓰기에서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 예이다(국어연구원 1997:34).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받아쓰기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 방언을 그대로 적거나 방언의 발음대로 적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될 때까지도 글을 표준어로 쓰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생기는 이러한 혼란이 언

어 생활과 언어 학습에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역어 표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표준어 쓰기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문자가 단순히 소리의 기호화가 아니라 의미의 전달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호 표기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특히 글쓰기는 일종의 의미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지나친 표준어의 강조는 자연스런 사고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표준어 교육에서도 지역어에 의한 표기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지역어의 어휘나 문법 표현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술지 줌 드셔보이다.’로 ‘부추김치 줌 드셔보아요.’를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은 아니며, 오히려 효과적인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다.

낭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준어 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실제 자신들의 생활 역양과는 다른 ‘표준어식’ 역양으로 책을 읽어간다. 그러나 지역어에 익숙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의 경우 이러한 읽기는 무색무취한 읽기이거나 내적 감정과 표현 방식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 이입된 낭독은 자신의 역양으로 읽는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적어도 대화문의 경우라면 지역어 역양을 살려 ‘지역어식’으로 낭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어로 살기에서는 지역어를 통한 의사소통 못지 않게 지역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고장의 전래 지명에는 그 고장 사람들만이 경험한 애환과 정서가 담겨 있다. 또 지명에 따라서는 그 마을이 길하고 흥하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원이 담겨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임법, 호칭과 지칭, 속신어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역어에 스며 있는 지역 공동체의 전통과 의식과 삶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이해가 기성 세대의 삶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고 이러한 바탕이 기성 세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시> 사상과 관련한 지명 교육의 예

다음은 ‘칠성(七星)’이라는 지명의 배경 유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지방에서 이와 같이 민속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한 지명을 찾아 그 배경 사상을 알아보자.

신앙의 대상으로 중요시한 북두칠성은 북극성의 둘레에 국자 형태로 배열된 7개의 별로서 큰곰자리에 속한다. 신격화시킨 7개의 별을 토속 신앙으로 모실 때 칠성당(七星堂)이 되고, 불교와 결합되어 사원에 모실 때 칠성각(七星閣)이 된다. 제주시에는 거리의 명칭으로 칠성로(七星路),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칠성동(七星洞)이 있다. 이것은 고·량·부 세 성씨가 분거하면서 북두칠성처럼 땅을 높여 살아온 데 발생 근원이 있지만, 이후 토속 신앙과 결부된 지명으로 바뀐 것이다.

대구시의 칠성바위는 바위가 널려 있는 모습이 북두칠성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이 바위에서 유래하여 칠성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남으로써 동단위의 행정구역 이름에서 제주시의 칠성동과 마찬가지로이다. 충북의 괴산군에도 칠성바위가 있는데, 그 상징성을 따서 칠성면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단양군의 대강면에도 칠성바위가 있는데 7개의 바위가 높이 솟아 북두칠성을 연상케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2의 단양팔경으로 알려진 칠성암(七星岩)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칠성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장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칠성신앙이 토속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오홍석 1995:35)

다. 잇기

지역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교육적 처치는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지역어에는 고유어나 고어의 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어는 물론 표준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어를 통한 어휘의 확장은 북한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찾아낼 수 있는 고유어의 원천은 또한 방언에 있다. <중략>

방언은 원래 인민대중이 늘 쓰던 말이며 그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민족 고유의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방언은 인민대중의 일상생활, 특히 늘 쓰는 입말에 오르면서 자기의 특성을 오래 보존하여왔다. 그러므로 방언에서 좋은 것들을 적극 찾아 현대의 미감에 맞게 세련시켜 쓴다면 무노하여는 더욱 풍부화되며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는 민족자주적인 단어체계는 더욱 주체성 있게 발전풍부화 된다.<중략>

물려있는 고유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은 고장이름가운데도 있다. <중략> 고장이름의 많은 것들에는 오래동안 인민대중이 써오던 고유어, 인민성 있는 고유어적 요소들이 풍부하다. 이러한 고유어적 요소들에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문화적전통과 풍부한 정서들이 스며있다. 그리하여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은 단어체계의 주체성을 보장하며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는 원천으로 될 수 있다. (주체언어이론 134-5)

이삼형 외(2000:85)에 의하면 지역어를 통한 어휘의 확장은 창의성 신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역어는 다른 측면에서 요즘 청소년들의 전자 언어 시대에서 일종의 대안 언어로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의 탈규범적인 언어 표현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곳은 역시 채팅과 같은 전자 매체의 의사소통 상황이다. 다음은 어느 고등학생이 컴퓨터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러한 글쓰기를 보면 지역어가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대안 언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여그 침왔는디 참말로 좋아부네  
 근디 여그다가 나쁜말쓰른 눈 껌뻑혈새에 싸그리 지워져  
 뽀꺼갈구마... 선상님이 답장을 보내주는거 같던디...  
 나의 정체가 알고싶담은 갈마를 찾으쇼 구라로~~~  
 <어느 고등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서>

지역어의 요소들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생성되어 성장하고 소멸해 간다. 지역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어를 계승 발전하려는 태도가 지역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

다.

## 5. 결론 : 다시 표준어로

지역어는 지역 공동체의 생활 언어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어 교육은 튼실한 표준어 교육의 바탕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굳건한 모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어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어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표준어 교육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 국어 교과서 내에 '지역어 생활' 단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 지역어 생활 단원을 포함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인 국어 교과서가 지방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I), 국립국어연구원.
- 김공철(1983), 방언학, 학문사.
- 김문환(2001), 지방자치와 지역문화-문화복지의 이념을 중심으로-, 제27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지방자치와 지역문화(2001. 6)의 주제 발표 자료집. (<http://fnf-cla.hanyang.ac.kr/rsh/>에서 인용함).
- 박혜숙(2000), 지역문화시대를 바라보며, 지방자치정보지 115호. (<http://fnf-cla.hanyang.ac.kr/rsh/>에서 인용함).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 사회과학출판사.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1996),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

오홍석(1995), *땅 이름 나라 얼굴*, 고려원미디어.

이삼형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편(1997),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사.

황적륜 외 공역(1994),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Barbara M. Mayor & A. K. Pugh(1987), *Language Communication and Education*, Open University Set Book, Croom Helm.

Larry Andrews(1998), *Language Exploration and Awareness - A Resource Book for Teachers*(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초록>

## 지역어와 국어교육

임 칠 성

본고에서 필자는 지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지역어’가 한 지역 내에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지역어를 알게 하는 것, 지역어를 활용한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 그리고 지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양성 등.

지역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역어 교육은 튼실한 표준어 교육의 바탕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어】** 지역어, 지역어교육, 표준어, 방언, 국어교육

<Abstract>

## Region Languages and Language Education

Im, Chil-song

In this paper, I insist that we should teach region languages in schools. 'Region Languages' indicate not languages which have used traditionally in a region, but languages that is communicated in daily life by the region community members, in present.

To teach region languages, we should include some contents in the syllabus; to make a student understand his region language, to increase a student's capability of communication by his region language, and to cultivate desirable attitude to his region language.

Teaching region language is important to students. Nevertheless, it is more important that it should be taught after the standard language.

**【Key words】** region language, teaching region language, standard language, dialect, korean language education.